

변증 설문지 문항을 통해 살펴 본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특성

손재웅¹⁾ · 이규진¹⁾ · 장보형²⁾ · 장수빈²⁾ · 고성규²⁾* · 최인화¹⁾³⁾*

¹⁾ 강동경희대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²⁾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경희대학교 한의학임상연구 및 의약품 개발센터

³⁾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안이비인후피부과 교실

Characteristics of Patients with Allergic Rhinitis through the Pattern Questionnaire Items

Jae-Woong Son¹⁾, Kyu-Jin Lee¹⁾, Bo-Hyeong Jang²⁾,
Soobin Jang²⁾, Seong-Gyu Ko²⁾* & In-Hwa Choi¹⁾³⁾*

¹⁾ Departmen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at Gangdong, Seoul, Republic of Korea

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and Center
for Clinical Research and Drug Development, Kyung Hee University

³⁾ Department of Ophthalmology, Otolaryngology and Dermat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 We performed a clinical study to investigate pattern characteristics in persistent allergic rhinitis depending on Korean Medicine pattern questionnaire items as a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tool.

Method : 32 patients with persistent allergic rhinitis were asked to interview with doctor of Korean Medicine and perform the 4 pattern questionnaires(Cold-Heat Pattern, Phlegm Pattern, Yin Deficiency pattern, blood-stasis pattern). Then, we analyzed the response rate of each pattern questionnaires.

Results : After diagnosis of Korean Medicine Doctor's pattern identification, 17 individual items have higher response rate, 7 of 17 items have a common tendency in allergic rhinitis. The other 8 of 10 items belong to Lung qi deficiency cold and Lung-spleen qi deficiency group, these have higher tendency of deficiency. In bloodstasis pattern questionnaires, we don't decide the tendency of patients with allergic rhinitis.

Conclusion : The result may provide that we don't use Korean Medicine pattern questionnaires as a major tool in the pattern identification of allergic rhinitis. Continuous studies are needed to develop the standardized pattern identification diagnostic tool.

Key words : Pattern Identification; Pattern Questionnaire; Diagnostic Tool; Allergic Rhinitis

• 접수 : 2014년 11월 21일 • 수정접수 : 2014년 12월 17일 • 채택 : 2014년 12월 19일

* 교신저자 : 최인화,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 강동경희대학교병원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교실

전화 : 02-440-6235, 전자우편 : inhwajun@hanmail.net

고성규,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한의학임상연구 및 의약품개발센터

전화 : 02-961-0329, 전자우편 : epiko@khu.ac.kr

I. 서론

알레르기 비염은 특정한 알레르기 항원에 대한 IgE 매개 면역반응으로 염증이 발생하며, 주 증상은 수양성 비루, 코막힘, 재채기 및 가려움증으로, 이러한 증상 중 하나 또는 여러 가지의 증상으로 규정되는 복합적인 질환이다¹⁾. 한의학에서는 비구(鼻竇), 구체(竇嚏)의 병증에서 유사한 증상을 볼 수 있으며, 병인은 비(脾), 폐(肺), 신(腎)의 허약과 풍한사기(風寒邪氣)의 침입으로 보고 있다²⁾.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변증진단에 대하여 2008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된 알레르기 비염의 한의학적 변증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 알레르기 비염을 실증(實證)에 해당하는 폐위열(肺胃熱), 허증(虛證)에 해당하는 폐기허한(肺氣虛寒), 폐비기허(肺脾氣虛), 신원허(腎元虧虛)로 분류한 바 있다^{3),4)}. 알레르기 비염의 한의학적 변증기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현재까지 비내시경을 활용한 한의학적 변증 지표의 관찰자간, 관찰자내 신뢰도 연구가 있었고, 알레르기 비염의 한의학적 분류를 위한 진단 평가지와 한의사 변증의 일치도 평가가 이루어졌다^{5),6)}. 하지만 선행연구들과 더불어 본 저자들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에게 동일한 질환을 가진다는 특징 이외의 변증에 있어서의 공통점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저자들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비염의 한의학적 변증 분류에 따른 한의사 변증진단을 시행하고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뢰도, 타당도의 연구가 완료된 변증설문지인 한열변증설문지, 담음변증설문지, 음허변증설문지, 어혈변증설문지를 활용하여 알레르기 비염 환자군의 설문지 분석을 통한 변증군별 문항 다빈도 경향성을 파악하고 향후 변증 도구를 개발하는데 있어 한의학 변증 설문지 문항의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II.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임상시험 모집공고를 통해 강동경희대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클리닉에 2014년 3월 12일부터 4월 17일까

지 알레르기 비염으로 내원한 36명의 환자 중 다음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며,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선정기준

다음의 모든 기준을 만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 (1) 모집 당시 만 18세 이상의 성인 남녀
- (2) 모집 당시 비폐색, 콧물, 재채기, 비소양증, 안구소양증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있는 자
- (3) 피부단자검사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이 확진된 자
- (4)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동의서에 서명한 자

2) 배제기준

다음의 조건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1) 내원 후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에 의해 혈관운동성비염, 약물성비염, 위축성비염으로 진단된 자
- (2) 천식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는 천식 환자
- (3) 비강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자(연구시작 전 2개월 이내)
- (4) 다음의 약물을 복용 중이거나 제시된 기간 안에 복용한 적이 있는 자(알레르기 비염 증상과 피부단자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① 비강용 경구용 속효성 항히스타민제(연구시작 전 1주일 이내)
 - ② 비강용 경구용 지속성 항히스타민제(연구시작 전 2주일 이내)
 - ③ 비강용 경구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연구시작 전 1개월 이내)
 - ④ 비강용 경구용 충혈완화제(연구시작 전 1주일 이내)
 - ⑤ 비강용 경구용 항류코트리엔제(연구시작 전 1주일 이내)
 - ⑥ 삼환계 항우울제, 항정신병제(페노티아진계)(연구시작 전 2주일 이내)
 - ⑦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제(연구시작 전 1주일 이내)
 - ⑧ 기타 연구자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약품을 복용한 경우
- (5) 약물 알레르기를 경험한 적이 있는 자

- (6) 알레르기 검사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적이 있는 자
- (7) 임신부나 수유부
- (8) 내원 당시 또 다른 임상 시험에 참가하고 있는 자
- (9) 임상연구에 참여하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힘든 자(마비, 심각한 정신적 혹은 심리적 이상, 치매, 약물중독, 연구에 참가할 시간이 안 되는 경우, 심각한 시각이나 청각의 이상, 통원이 불가능한 경우, 한국어로 읽고 쓰기가 안 되는 경우 등)

2. 연구방법

1) 한의사 변증 시행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1인이 환자와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 변증진단 하였으며, 2008년에 제시된 알레르기 비염의 한의학적 변증기준에 준하여 실증에 해당하는 폐위열, 허증에 해당하는 폐기허한, 폐비기허, 신원휴허 중 하나로 변증진단 하였다.

2) 변증 설문지 작성

신뢰도와 타당도 연구가 완료된 4종의 변증설문지(한열변증설문지⁷⁾, 담음변증설문지⁸⁾, 음허변증설문지⁹⁾, 어혈변증설문지¹⁰⁾)의 작성방법을 설명해주고 환자 스스로 기입하게 하였다. 본인 증상에 따라 가장 유사한 문항에 기입할 수 있도록 했으며 환자 스스로 잘 모르는 부분은 질문을 하도록 하여 환자 자의로 해석하지 않도록 하였다.

한열변증설문지는 총 20개 항목으로, 항목별로 본인 상태에 해당하면 체크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체크하지 않도록 하였다. 설문지와 별개로 시행한 한의사 변증 결과를 이용하여 신뢰도, 타당도 연구 논문에 제시된 수식에 따라 변환하여 최종적으로 연구대상자를 한증과 열증으로 분류하였다.

담음변증설문지, 음허변증설문지, 어혈변증설문지는 각각 27개, 25개, 12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항목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는 리커트 7점 척도 방식을 이용하였다. 기입된 척도를 설문지별 기준에 따라 변환하여 연구대상자를 담음증과 비담음증, 음허증과

비음허증, 어혈증과 비어혈증으로 분류하였다.

3) 분석 방법

- (1) 변증진단 결과와 상관없이 전체 환자 32명의 응답률이 80% 이상, 70~80%, 60~70%, 50~60%, 50% 미만인 설문지 문항들을 조사하였다.
- (2) 변증 설문지 결과에 근거하여 환자들을 분류한 후, 각 증마다 상위 다빈도 문항 3순위까지 조사하였다.
- (3)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1인의 변증진단 결과에 따라 환자들을 폐위열군, 폐기허한군, 폐비기허군, 신원휴허군으로 분류한 후, 변증군 별 다빈도 문항을 분석하여 50% 이상의 응답률을 나타낸 상위 문항 3순위까지 조사하였다.

3. 윤리적 승인

본 연구는 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기관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KHNMC-OH-IRB 2013-0014).

III. 연구결과

1. 연구 대상자의 특성

1) 인구학적 특성

연구에 참여하고자 내원한 환자 36명 중,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에 의해 적합하게 선정된 연구대상자는 남자 9명, 여자 23명으로 전체 32명이다. 평균 연령은 34.1세였고 19세~59세까지의 분포를 보였다(Table 1).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tients

Age(years)	Male(n)	Female(n)	Total
18~29	5	8	13
30~39	2	8	10
40~49	1	5	6
50~59	1	2	3
Mean Age(SD)	34.1(10.4)		
Total	9	23	32

* SD : Standard Deviation

2) 변증별 분포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가 총 32명의 환자를 직접 대면한 후 변증진단한 결과, 폐위열로 변증된 경우가 8명, 폐기허한으로 변증된 경우가 9명, 폐비기허로 변증된 경우가 15명이었으며 신원후허로 변증된 경우는 없었다.

변증설문지를 활용한 진단 결과 한열변증에서 한증 20명, 열증 12명이었으며, 담음변증 결과 담음증 22명, 비담음증 10명이었다. 또한, 음허변증에서 음허증 10명, 비음허증 22명이었으며, 어혈변증의 경우 어혈증 6명, 비어혈증 26명이었다(Table 2).

2. 변증설문지에 따른 문항 분석

1) 한열변증설문지

32명의 환자들의 설문지 응답률에 근거하여 총 20문

항을 분류하여 보면, 80% 이상 나온 문항은 1문항으로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이며, 84.38%의 응답률을 보였다. 70~80% 사이의 응답률이 나온 문항은 3문항으로 각각 '찬 기운이나 추운 것이 싫습니다.', '뽀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습니다.', '갈증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의 문항들로, 응답률은 각각 78.13, 78.13, 70.97%로 나타났다. 이 중 '갈증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의 문항은 1명의 환자가 응답을 하지 않아 결측값이 생겨, 응답한 31명 대상으로 응답률을 표기하였다. 60~70% 사이로 응답한 문항은 1문항으로 '손발이 잘 시리거나 차가운 편입니다.'라는 문항이며, 응답률은 62.50%로 나타났다. 50~60% 사이의 응답률이 나온 문항은 '배가 차갑고 서늘한 편입니다.', '얼굴이나 눈이 붉어졌습니다.'로 두 문항 모두 응답률은 53.13%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문항은 50% 미만의 응답률을 보였다(Table 3).

한증으로 변증된 20명의 환자들 중 95.00%의 응답률을 차지한 문항은 '찬 기운이나 추운 것이 싫습니

Table 2. Pattern Identification of Patients

Diagnosis by Korean Medicine Doctor	Patients(n)	Rate(%)
Lung-stomach heat	8	25.00
Lung qi deficiency cold	9	28.13
Lung-spleen qi deficiency	15	46.88
Kidney deficiency	0	0.00
Total	32	100.00
Diagnosis by Pattern Questionnaires		
Cold / Heat	20/12	62.50/37.50
Phlegm / Non-Phlegm	22/10	68.75/41.25
Yin Deficiency / Non-Yin Deficiency	10/22	31.25/68.75
Bloodstasis / Non-Bloodstasis	6/26	18.75/81.25

Table 3. Response Rate of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Items

Response Rate	Items(n)	Contents	Response Rate(%)
Above 80%	1	I've preferred warmth.	84.38
70~80%	3	I've had aversion to cold.	78.13
		I've produced thin and clear sputum or nasal mucus.	
		I've been thirsty or my mouth has felt dry.	70.97*
60~70%	1	I've felt coldness in the hand of foot.	62.50
50~60%	2	I've experienced coldness in the abdomen.	53.13
		My face or eyes have been flushed.	
Below 50%	13		
Total	20		

* The missing piece in response is treated as a missing value.

다.',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의 두 문항이다. 그 다음으로 응답 빈도를 보인 문항은 응답률 80.00%의 '손발이 잘 시리거나 차가운 편입니다.', '뭍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습니다.'두 문항이다.

열증으로 변증된 12명의 환자들은 '갈증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문항에 81.81%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뭍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습니다.'의 문항이 75.00%로 그 다음 빈도를 보였다. '시원하고 서늘한 것이 좋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더운 증세가 있습니다.', '얼굴이나 눈이 붉어졌습니다.'의 세 가지 문항은 모두 66.67%의 응답률을 보였다(Table 4).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1인이 총 32명을 변증한 결과를 토대로 각 변증군 별로 문항 응답률이 높은 순서를 조사하였다. 폐위열군에서는 '뭍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습니다.' 문항이 75.0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 '몸에 열이 나고 더운 증세가 있습니다.',

'갈증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의 문항이 각각 62.50%의 응답률을 보였다.

폐기허한군에서는 '찬 기운이나 추운 것이 싫습니다.',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 '갈증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의 문항이 각각 88.89%의 응답률을 보였다.

폐비기허군에서는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의 문항이 93.3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찬 기운이나 추운 것이 싫습니다.', '뭍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습니다.'의 문항이 각각 86.67%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Table 5).

2) 담음변증설문지

총 25문항 중 50% 이상의 응답률을 차지한 문항은 두 문항이다. '자주 피곤한 편이다.' 문항이 응답률 75.00%를 나타내었으며, '눈 밑이 검은 편이다.'의 문항이 50.00%

Table 4. High Response Rate of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Items Depending on Pattern Identification

Pattern Group	Contents	Response Rate(%)
Cold	I've had aversion to cold,	95,00
	I've preferred warmth,	
	I've felt coldness in the hand of foot,	80,00
	I've produced thin and clear sputum or nasal mucus,	
Heat	I've been thirsty or my mouth has felt dry,	81,81*
	I've produced thin and clear sputum or nasal mucus,	75,00
	I've preferred sensations of cold,	66,67
	I've felt excessively warm,	
	My face or eyes have been flushed,	

* The missing piece in response is treated as a missing value.

Table 5. High Response Rate of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Items Depending on Diagnosis by Korean Medicine Doctor

Pattern Group	Contents	Response Rate(%)
Lung-stomach heat	I've produced thin and clear sputum or nasal mucus,	75,00
	I've preferred warmth,	62,50
	I've felt excessively warm,	
	I've been thirsty or my mouth has felt dry,	
Lung qi deficiency cold	I've had aversion to cold,	88,89
	I've preferred warmth,	
	I've been thirsty or my mouth has felt dry,	
Lung-spleen qi deficiency	I've preferred warmth,	93,33
	I've had aversion to cold,	86,67
	I've produced thin and clear sputum or nasal mucus,	

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Table 6).

담음증인 22명의 환자 중에 95.45%의 환자들이 '자주 피곤한 편이다.'에 응답하였다. 68.18%의 환자들이 '피부가 가렵다.'라는 문항에 응답하였고,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문항에 59.09%의 환자들이 응답하였다.

비담음증인 10명의 환자들의 다빈도 문항은 '머리가 맑지 않다.', '자주 피곤한 편이다.', '눈 밑이 검은 편이다.'의 세 문항이며, 이들은 모두 30.0%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Table 7).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1인이 변증한 결과를 토대로 변증군 별 응답비율이 높은 문항을분석하니, 폐위열군에서는 '자주 피곤한 편이다.' 항목이 75.00%를

차지하였고, '머리가 맑지 않다.',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 문항이 각각 50.00%의 응답률을 보였다.

폐기허한군에서는 '눈 밑이 검은 편이다.'의 문항이 88.89%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자주 피곤한 편이다.' 문항이 77.78%로 그 뒤를 이었다. '머리가 맑지 않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놀란다.', '가래가 끊는다.' 문항이 각각 55.56%의 응답률을 보였다.

폐비기허군에서는 '자주 피곤한 편이다.'라는 문항이 73.33%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어지럼증을 느낀다.'가 66.67%, '피부가 가렵다.' 항목이 60.00%의 응답률을 보여 그 뒤를 이었다(Table 8).

Table 6. Response Rate of Phelgm Pattern Questionnaire Items

Response Rate	Items(n)	Contents	Response Rate(%)
Above 80%	0	-	
70~80%	1	I feel fatigued.	75,00
60~70%	0	-	
50~60%	1	I have dark circles under the eyes.	50,00
Below 50%	23		
Total	25		

Table 7. High Response Rate of Phlegm Pattern Questionnaire Items Depending on Pattern Identification

Pattern Group	Contents	Response Rate(%)
Phlegm	I feel fatigued.	95,45
	I feel itchy.	68,18
	I have a headache.	59,09
Non-phlegm	I feel fatigued.	30,00
	I feel unclear in the head.	
	I have dark circles under the eyes.	

Table 8. High Response Rate of Phelgm Pattern Questionnaire Items Depending on Diagnosis by Korean Medicine Doctor

Pattern Group	Contents	Response Rate(%)
Lung-stomach heat	I feel fatigued.	75,00
	I feel unclear in the head.	50,00
	I have a headache.	
Lung qi deficiency cold	I have dark circles under the eyes.	88,89
	I feel fatigued.	77,78
	I feel unclear in the head.	55,56
	I am startled by faint noise.	
	I have sputum in my throat.	
Lung-spleen qi deficiency	I feel fatigued.	73,33
	I feel dizzy.	66,67
	I feel itchy.	60,00

3) 음허변증설문지

총 27문항 중 80% 이상의 응답률을 보인 문항은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 한 문항이며, 70~80% 사이의 응답률을 보인 문항은 없었다. 60~70% 사이의 응답률을 나타낸 문항은 1문항으로 ‘기상 시 피로하다.’라는 문항이었으며, 50~60% 사이의 응답률을 보인 문항도 1문항으로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의 문항이었다 (Table 9).

음허증 환자 10명 전원은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 ‘다리나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두 문항에 음허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이상의 점수를 표기하였다. 또한, ‘기상 시 피로하다.’,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라는 두 문항은 90.00%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설문지에 의해 음허증이 아닌 환자 중 72.72%는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라고 응답하였고, ‘기상 시 피로하다.’의 문항은 59.09%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 ‘발 뒷꿈치가 갈라진다.’의 두 문항은 모두 36.36%의 응답률을 보였다 (Table 10).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1인의 변증한 결과를 토대로 변증군 별 응답률이 높은 항목을 조사하였더니,

폐위열군에서는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 문항이 75.00%를, ‘기상 시 피로하다.’라는 문항이 62.50%를 차지하였으며, 그 외의 문항은 50% 미만의 응답비율을 보였다.

폐기허한군에서는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 ‘기상 시 피로하다.’ 문항이 각각 77.78%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추위와 더위를 많이 탄다.’, ‘피부가 거칠다.’ 문항이 각각 55.56%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폐비기허군에서는 마찬가지로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 문항과 ‘기상 시 피로하다.’ 문항이 각각 86.67%, 66.67%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추위와 더위를 많이 탄다.’ 문항도 66.67%의 응답률을 보였다 (Table 11).

4) 어혈변증설문지

전체 환자 32명 중에 ‘몸이 쭈시듯이 아프다.’, ‘멍이 잘 든다.’, ‘발목이나 손목, 허리가 빠긋한 일로 인한 증상이 있다.’의 세 가지 문항이 22%의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1인의 변증군 별로 문항의 응답률을 분석한 결과, 세 군 모두에서 50% 이상의 응답률을 차지하는 문항은 없었다.

Table 9. Response Rate of Yin Deficiency Pattern Questionnaire Items

Response Rate	Items(n)	Contents	Response Rate(%)
Above 80%	1	I feel tired or languid.	81,25
70~80%	0	-	
60~70%	1	I feel tired in the morning.	68,75
50~60%	1	I am susceptible to heat and cold.	53,13
Below 50%	24		
Total	27		

Table 10. High Response Rate of Yin Deficiency Pattern Questionnaire Items Depending on Pattern Identification

Pattern Group	Contents	Response Rate(%)
Yin Deficiency	I feel tired or languid.	100,00
	I feel dull pain in my ankle or knee.	
	I feel tired in the morning.	90,00
	I am susceptible to heat and cold.	
Non-Yin Deficiency	I feel tired or languid.	72,72
	I feel tired in the morning.	59,09
	I am susceptible to heat and cold.	36,36
	My heel is dry and cracked.	

IV. 고찰

알레르기 비염의 기존 변증진단 과정을 표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2008년 알레르기 비염의 한의학적 변증기준에 대한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논의 결과 실증에는 폐위열로, 허증에는 폐기허한, 폐비기허, 신원허허로 분류한 적이 있으며⁴⁾, 2013년 알레르기 비염 평가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하여 비내시경을 활용하여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전비경 소견 평가 척도를 개발하고¹¹⁾, 그에 따른 신뢰도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통년성 알레르기 비염의 변증 도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집단 설문조사 연구를 통하여 한의학 임상연구의 변증도구 사용 및 결과 해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¹²⁾

최근 2014년, 2008년 발표된 알레르기 비염의 한의학적 변증기준에 따른 변증 결과와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의 변증 결과를 비교한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두 가지의 결과 일치도가 매우 낮게 나타나 현재 변증 도구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⁶⁾. 이에 본 저자들은 변증진단의 표준화 과정에 있어 한의학 변증 설문지를 향후 변증도구를 보완, 개발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는 총 32명으로 남자 9명, 여자 23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4.1세였다. 한열변증설문지를 통해 한증으로 변증된 사람은 20명이며, 열증으로 변증된 사람은 12명이었다. 담음변증설문지를 통해 담음증과 비담음증으로 변증된 사람은 각각 22명, 10명이었으며, 음허변증설문지에 의해 음허증과 비음허증으로 변증된 사람은 각각 10명, 22명이었다. 또한, 어혈변증설문지에 의해 어혈증으로 변증된 사람은 6명, 비어혈증으로 변증된 사람은 26명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4종의 변증설문지의 문항은 코 증상뿐만 아니라 전신 증상에 입각한 문항도 포함되어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20개, 25개, 27개,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증진단과 상관없이 전체 환자 32명의 한열변증설문지 응답률이 50% 이상인 문항은 7문항이며 그 중 5 문항이 한증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증으로 변증이 된 환자들이 20명, 열증으로 변증된 환자들이 12명으로 그 인원수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라 사료

된다.

한열 변증 후, 각 증별로 다빈도 문항을 분석해보면, '맑고 투명한 콧물이나 가래가 있습니다.'라는 설문지 문항만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알레르기 비염의 주 증상을 표현하는 것으로 본 설문지 문항은 한열과 관계없는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문항들은 모두 한증과 열증에 부합하는 다빈도 문항이라 볼 수 있다.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전문의 1인의 변증진단 후, 변증군 별 한열변증설문지 문항의 다빈도 분석을 하였을 때는, 폐위열, 폐기허한, 폐비기허 세 군에서 그 특성에 적합하게 한증과 열증으로 다빈도 문항들이 알맞게 분석되었지만, 폐위열군의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라는 문항과 폐기허한군의 '갈증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라는 문항은 서로 변증진단 된 것과 내용이 상충된다. 하지만, '따뜻한 기운이나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라는 문항은 다른 폐기허한, 폐비기허군에도 있는 것으로 보아, 한열허실의 개념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에서 나타날 수 있는 큰 특징이라 볼 수 있으며, '갈증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의 문항 역시 한열변증진단 시 열증으로 진단된 군에서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지만, 한증에서도 낮지 않은 응답률을 보여 이 역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친 결과라 보기 어렵다.

담음변증설문지에서는 50% 이상 답변한 문항으로 '자주 피곤한 편이다.', '눈 밑이 검은 편이다.'라는 두 가지 문항이 포함되었는데, 전자 문항으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느끼는 삶의 질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후자는 눈 아래 생기는 다크서클을 의미하는데, 이는 알레르기 비염으로 인한 눈 주위의 소양증에 의해 생기기도 하며, 특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은 경우 심해진다고 알려져 있다.¹³⁾

또한, 담음증과 비담음증으로 변증을 할 때, '자주 피곤한 편이다.', '머리가 아플 때가 있다.', '머리가 맑지 않다.'의 3가지 문항은 양쪽 모두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이기에 이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공통된 경향성이라 볼 수 있다.

한의사 1인이 변증을 한 경우, 폐기허한군에서 다빈도 문항으로 뽑힌 '사소한 일에도 쉽게 놀란다.'문항의 경우, 다른 두 군의 응답률이 25.00%, 26.67%로 다소 낮은 반면, 폐기허한군에서 55.5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으로 보아, 이는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폐기허한군의 경향이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눈 밑이 검은 편이다.’의 문항도 폐기허한군에서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이 문항도 알레르기 비염을 가진 폐기허한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음허변증설문지에서는 50% 이상 답변한 문항으로 ‘피로를 느끼는 편이다.’, ‘기상시 피로하다.’, ‘추위와 더위를 둘 다 많이 탄다.’의 3가지 문항이 분석되었는데, 이 중 2가지 문항 역시 알레르기 비염 환자에게 있어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설문지 역시 높은 응답률을 가진 문항들이 마찬가지로 허증(虛證)의 경향성을 보인다. 변증을 음허증과 비음허증으로 하여 다빈도 문항 분석을 하였지만, 두 군 간에 위의 언급된 3가지의 문항을 제외하고는 특정 변증군을 대표할 수 있는 설문지 문항은 없었다. 폐위열, 폐기허한, 폐비기허 세 군으로 본 설문지 문항을 분석한 결과 이 역시 어떤 특정 변증군을 대표할 수 있는 설문지 문항은 나오지 않았다.

어혈변증설문지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 32명에게 있어 변증 진단의 뚜렷한 경향성을 찾을 수 없었다.

4종의 변증 설문지 다빈도 문항 분석을 통하여 알레르기 비염 환자 32명의 경향성을 분석한 결과 총 17문항이 다빈도 문항으로 분석되었다. 그 중 7문항은 변증 진단과 연관성이 낮은 알레르기 비염의 공통적인 경향성이라 볼 수 있었다. 그 외 10문항 중 8문항이 상대적으로 허증에 해당하는 폐기허한, 폐비기허군에 속하는 문항들이었으며, 실증에 해당하는 폐위열군에는 2가지 문항만 존재하여 허증에 해당하는 변증군의 문항수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본 연구는 4종의 변증설문지를 통해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실질적인 경향성을 파악한 것으로, 향후 변증 도구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들의 응답률이 낮았던 기존의 설문지 문항의 특성을 파악하여 개선한다면, 환자의 증상 및 상태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설문지를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설문지를 주도로 하여 변증을 하였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소규모 연구로 진행되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변증 도구 개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본 연구는 임상시험 모집공고를 통해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한방안이비인후클리닉에 2014년 3월 12일부터 4월 17일까지 알레르기 비염으로 내원한 36명의 환자 중 다음의 선정기준을 충족하며,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한열변증설문지, 담음변증설문지, 음허변증설문지, 어혈변증설문지의 작성을 하였으며, 설문지별로 변증에 상관없이 다빈도 문항을 분석하였으며, 설문지를 기반으로 변증을 하여 다빈도 문항을 분석하였고, 한방안이비인후과부과 전문의 1인의 변증진단을 근거로 변증군을 나누어 다빈도 문항들을 분석하였다.

1. 연구대상자는 전체 32명으로 19세~59세까지의 남자 9명, 여자 23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34.1세였다.
2. 변증 설문지에 따라, 한증으로 변증된 사람은 20명, 열증으로 변증된 사람은 12명, 담음으로 변증된 사람은 22명, 비담음으로 변증된 사람은 10명, 음허로 변증된 사람은 10명, 비음허로 변증된 사람은 22명, 어혈로 변증된 사람은 6명, 비어혈로 변증된 사람은 26명이었다.
3. 설문지 응답률이 높은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 한열변증설문지, 담음변증설문지, 음허변증설문지에서 한의사의 변증 진단 후, 응답률이 높은 문항은 총 17문항이었으며, 7문항은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공통적인 경향성을 나타내는 문항이었으며, 나머지 10문항 중 8문항은 허증에 해당하는 폐기허한, 폐비기허군에 속하여 전반적으로 허증의 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어혈변증설문지에서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경향성을 판단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살펴 본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의 변증 유형은 폐기허한, 폐비기허가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의 개발된 변증 설문지만을 알레르기 비염 변증 도구로 활용하는 데는 다각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본 연구가 향후 변증 도구의 표준화 연구에 알레르기 비염 환자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말씀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한의약선도기술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H112C1889)

참고문헌

1. David PS, Allergic rhinitis: definition, epidemiology, pathophysiology, detection, and diagnosis. *Journal of Allergy and Clinical Immunology*. 2001;108:2-8
2. Yang JH, Park JH, Han YS. Review in the view of Western and Oriental medicine on allergic rhinitis. *J Jeahan Oriental Med Acad*. 1999;4(1):436-448
3. Kim BS, Lim JH, Lee MH, Yun YJ. Reliability Study of the Pattern Identification Questionnaire Developed by Korean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he Journal of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Diagnostics*. 2013;17(1):29-44
4. Ko SG, Shin YC. The Research on evaluation endpoint development for clinical trial of herbal medicinal products about atopic dermatitis and allergic rhinitis.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report. 2008.
5. Kim KS, Yun YH, Park JS, Kim NK, Kim KJ, Kim HT, Hong SU, Jang BH, Yoon HJ, Choi IH, Ko SG. Inter- and Intra-rater Reliability of Pattern Identification Using Nasal Endoscopy for Allergic Rhiniti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13;26(2):10-18
6. Lee KJ, Kim HT, Jang BH, Choi IH, Ko SG. Assessment of Concordance Rate in Pattern Analysis between Pattern Diagnosis of KIFDA on Allergic Rhinitis in 2008 and Doctor of Korean Medicine.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14;27(1):91-98
7. Ryu H, Lee H, Kim H, Kim J.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Cold-Heat Pattern Questionnaire for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0;16(6):663-667.
8. Park YJ, Park JS, Kim MY, Park YB. Development of a Valid and Reliable Phlegm Pattern Questionnaire.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1;17(9):851-858.
9. Park YJ, Cho SW, Lee BH, Park YB.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Yin Deficiency Scale. *The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013;19(1):50-56.
10. Park YJ, Yang DH, Lee JW, Park YB. Development of a valid and reliable bloodstasis questionnaire and its relationship to heart rate variability.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13;21:633-640.
11. Yun YH, Park JS, Kim KS, Kim NK, Kim KJ, Kim HT, Hong SU, Choi IH, Ko S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Guideline for Assessing Anterior Nasal Cavity Using Nasal Endoscopy on Allergic Rhinitis Patients. *Kor. J. Oriental Preventive Medical Society*. 2013;17(1):199-207
12. Kim NK, Lee DH, Choi IH, Ko SG. An expert survey for developing pattern diagnosis instrument of persistent allergic rhinitis. *The Journal of Korean Medical Ophthalmology & Otolaryngology & Dermatology*. 2013;26(2):1-9
13. Freitag FM, Cestari TF. What causes dark circles under the eyes?. *J Cosmet Dermatol*. 2007 Sep;6(3):211-215